

벌이 적은 광주 청년들 '엔겔지수' 높다

광주청년센터 '광주 청년 인식조사'

광주 청년들은 한 달 생활비 가운데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정부수당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먹는 데 쓰고 싶어했다.

광주청년센터가 1일 발표한 '광주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청년은 한 달 평균 28만9000원을 식비로 쓰는데, 생활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가장 높았다.

광주청년센터는 만 19~39세 광주주민 2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광주 청년들의 평균 한 달 생활비는 180만9000원이었다.

식비에 이어 지출이 많은 부문은 주거비(15%)로, 한 달 27만2000원 가량을 썼다. ▲저축비 25만8000원(14.3%) ▲문화활동비 19만3000원(10.7%) ▲교육비 18만7000원(10.4%) ▲교통비 17만5000원(9.7%) ▲통신비 15만1000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청년은 한 달 생활비의 7.8% 가량(14만1000원)을 빚을 갚는 데 쓴다고 답했다.

광주 청년들은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았다면

한 달 생활비 180만9000원 중 식비 28만9000원 16% 차지
주거비 27만2000원·저축 25만8000원...부채 상환 14만원
정부 지원금 받으면 식비로...“일하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

가장 먼저 식비로 쓰고 싶다고 응답했다.

“1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받는다면 쓰고 싶은 항목(주관식)을 묻자 광주 청년들은 ‘식비’를 가장 많이 언급(544번)했다.

식비에 이어서는 주거비(374번), 교육비(287번), 저축(274번), 생활비(179번) 순으로 급한 지출 항목을 나열했다.

한편 “지금 당장 수당을 받고 싶다”(656번)는 청년들은 쓰고 싶은 항목으로 제일 먼저 ‘부채 상환’(132번·20.1%)을 들었다.

식비에 쓰고 싶다는 답변률은 17.7%(116번)에 달했고, 저축(16.9%·111번), 주거비(15.1%·99번), 교육비(10.5%·69번), 생활비(5.8%·38번), 의료비(4.1%·27번), 여행비(2.0%·13번), 의료비(1.8%·12번)가 뒤를 이었다.

광주 청년들이 ‘먹는 데’ 돈이 가장 급하다고 말

한 데는 그들의 낮은 소득수준에서 비롯된다.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엔겔지수’가 높다는 말로,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은 높아진다.

광주 청년의 37.4%는 일을 생활비 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을 하는 이유·의미에 대해 묻자 수입(생활비·등록금 확보)을 위해 일한다는 답변이 37.4%(75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적 삶을 꾸리고 싶어서(20.7%·415명) ▲계속 발전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7.2%·144명) ▲가치실현을 위해서(7.2%) ▲다양한 경험 및 향후 인생 설계를 위해서(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 대해 ‘개인위생관리 강화’(23.0%), ‘비대면 구매 증가’

■광주 청년들 한 달 생활비 (단위 : 만원)

응답	실제 지출(액)	환산 비용
주거비	27.2	15.0
교통비	17.5	9.7
교육비	18.7	10.4
문화활동비	19.3	10.7
통신비	15.1	8.3
식비	28.9	16.0
저축비	25.8	14.3
부채 상환비	14.1	7.8
기타	14.2	7.8
합계	180.9	100.0

(자료:광주청년센터)

(16.2%), ‘비대면 업무 증가’(15.3%), ‘학교 온라인 강의 증가’(10.9%)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지인과 모임 감소(17.4%), 개인위생 관리 강화(12.2%), 온라인 강의 증가(8.0%), 병의원 방문 연기·취소(7.9%)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4~24일 11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2%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

여수산단 생산액 23조... 6년 전의 '반토막'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유업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수국가산단단지 생산액은 6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여수국가산단 생산액은 23조91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5조9756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국가산단 2분기 수출액도 지난해 2분기보다 16.8%(-17억7400 달러) 감소한 88억7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여수산단 생산액은 6년 전인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절반 넘게 감소했다.

2014년 여수산단 생산액은 47조9502억원으로, 올해 생산액은 무려 50.1%(-24조원) 줄어 들었다.

2분기 기준 여수산단 생산액은 2014년 47조9502억원에서 2015년 35조5064억원, 2016년 31조7361억원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38조7512억원, 2018년 45조222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

만 지난해 29조8951억원에 이어 올해는 23조원대로 주저앉으며 최근 7년 동안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6년 동안 여수산단 수출액도 57.6%(-119억6300만 달러) 감소했다.

1년 새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는 299개에서 294개로 줄었고, 가동업체 또한 266개에서 262개로 감소했다.

한편 호남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남 석유정제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1.6%나 감소했다. 전남과 비교한 전남 석유정제 생산량은 7월(-4.2%)→8월(-11.2%)→9월(-10.6%)→10월(-11.6%) 등 4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수출이 줄어든 타격을 받았다"며 "지난 10월 광공업 생산량은 석유정제 산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통가, 수험생 응원

사상 초유 코로나19 확산세 속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지친 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 유통가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SNS(소셜미디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3일까지 1층 매장에서 '응원 캡슐 이벤트'를 벌인다.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응원의 말을 담은 캡슐을 수능 격려 소원함에 넣으면 된다.

광주신세계는 응원의 말과 #광주신세계수험생

응원 문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오는 13일 개별 연락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있는 '베비에르'는 유명인 식품 명인이 만든 쌀엿과 초콜릿, 호박·백련초 찹쌀떡, 롤케이크 등 합격기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 편의점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테이스트 오브 서울2020' 2002개 또는 이마트24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500원 쿠폰 2002장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수능을 앞두고 지하 1층 '베비에르' 매장에서 합격기원 떡·초콜릿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4.25 (+42.91)
↑ 코스닥	891.29 (+5.18)
↓ 금리(국고채 3년)	0.982 (-0.001)
↓ 환율(USD)	1106.20 (-0.30)

아시아나 인수 '날개'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차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조 갈등, 자금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대한항공은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일정을 진행해 내년 6월 30일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휴대폰 번호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증 기관의 업무 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아듀 코로나 2020 예술로 위로 받다

모두가 분투했던 한 해, 예술을 만나는 애뜻한 순간
코로나 블루 털고 송년은 문화와 함께
해님이, 해동이 가는 길에 만나는 미술관

기획: CULTURE 2020

되돌아본 올 한 해 문화계

문화를 품은 건축물④
소박한 작품 담은 담백한 미술관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

클릭, 문화현장⑥
예술 온기 전하고, 장작 밀어주는 에세이 산실
북한문화공간 '김넷과'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⑥
칸딘스키, '불협화음'에서 추상화 돌파구 찾다

예향 초대석

‘미술대중화 아이콘’ 미술사가 양정무
“우리 안의 미술적 본능 깨우시다”

문화 화제
남은 집의 이유있는 변신
갤러리가 된 주택들

송년기획-재즈에 빠진다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재즈에 물들어 보세요

문화 트렌드
문화 콘텐츠 집어삼키는
블랙홀, 게임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헤르만 헤세 ‘데미안’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금기에 도전하는 연예인들

유현준의 도시건축⑥
신작 극영화 ‘매미소리’로 돌아온 감독 이충렬
영화 속 공간, 계급 차의
은유가 숨어있다

화제의 전시
광주YMCA 100년 역사
‘영맨, 광주를 움직였다’ 전

사목사목 남도 한 바퀴-영암
녀사·전투 속으로
영암 氣 한 여행
역사의 보물 찾아가는 길
대령감, 나시, 환우